
주요국 예산안 - 미국

2021. 8.

연구책임자

윤성주 센터장

송경호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서동규 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 전망	1
가. 경제 전망	1
나. 재정 전망	3
2. 예산기조	7
3. 예산안 내용	8
가. 세입	8
나. 세출	10
4. 주요 재정정책	18
가. 인프라 계획(American Jobs Plan)	18
나.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19
5. 주요 사업 재원 조달 방안	19
가. Made in American Tax Plan	19
나. 고소득자 소득세 강화 및 조세 납부 관리 강화	20

미국 개황

□ FY2022 : 2021년 10월 ~ 2022년 9월

□ 출처 :

○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1.5.28.

○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1.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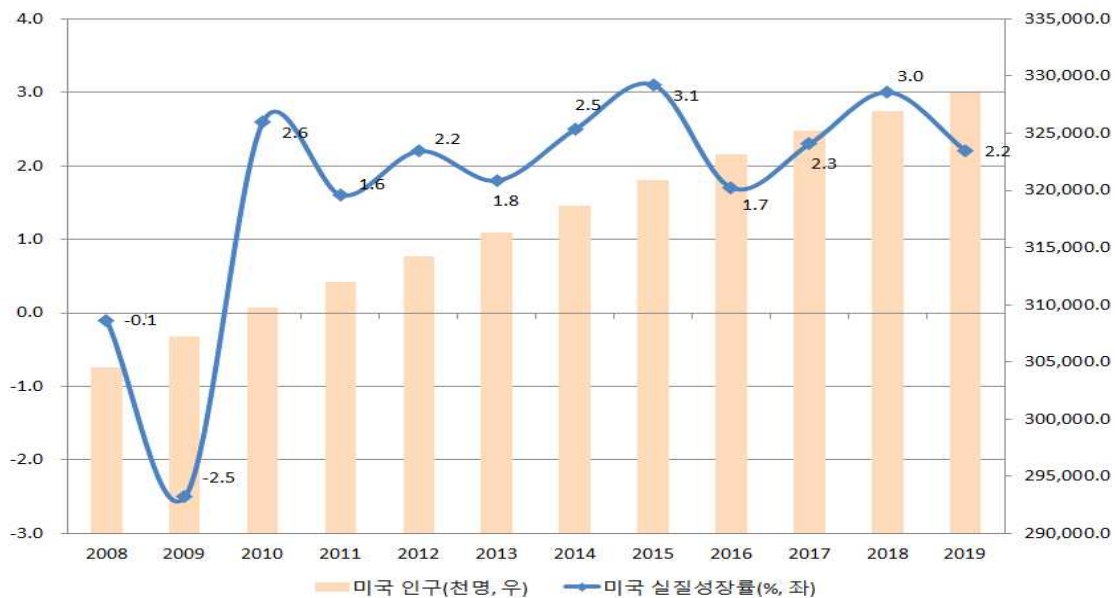
□ 환율 : 1USD = 약 1,121.52원 (2021년도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 2019년 경상GDP 21조 4,332억 달러 (우리나라의 약 12.6배 수준)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19년 기준 26.3% (우리나라는 77.0%)

□ 인구 : 3억 2,853만명 (2019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검색일자: 2021.7.26

<최근 재정 및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20.7.1.	관리예산처(OMB), FY2021 수정 예산안(Mid-Session Review, MSR) 발표	2020년 하반기 재정동향
2020.7.2.	의회예산처(CBO), 2020~2030 경제 수정 전망 발표	
2020.7.2. / 8.7. / 9.4. / 10.2. / 11.6. / 12.4.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0년 월간 고용 통계 발표	
2020.7.10.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현황 업데이트 발표	
2020.7.24.	의회 하원, 4개의 세출분야가 포함된 FY2021 부분세출예산안(minibus)(H.R. 7608) 통과 의결	
2020.7.15. / 9.2. / 10.21. / 12.2.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0.7.27.	의회 상원, 제2차 종합 경기부양법안인 “HEALS Act” 공개	
2020.7.28.	연방준비제도(Fed), 긴급대출제도 운용 연장 발표	
2020.7.29.	의회 하원, 경제회복을 위한 보육법안(Child Care for Economic Recovery Act; H.R. 7327) 통과 의결	
2020.7.29. / 9.16. / 11.5. / 12.16.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결정	
2020.7.30. / 10.29.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0년 분기별 GDP(속보) 발표	
2020.8.8.	트럼프 대통령, 추가 종합경제 부양책 행정명령 서명	
2020.8.12.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6개의 분야로 구성된 FY2021 부분세출예산안(H.R. 7617) 통과 의결	
2020.8.22.	의회 하원, 미국을 위한 배달법(Delivering for America Act; H.R. 8015) 통과 의결	

2020.8.27.	연방준비제도(Fed), 새로운 장기목표와 통화정책전략 발표
2020.9.2.	의회예산처(CBO), 2020~2030 예산기준선 수정 전망 발표
2020.9.2.	의회예산처(CBO), 주요 연방기금(trust funds) 전망 보고서 발표
2020.9.15.	상무부 인구통계국, 2019년 소득 및 빈곤 통계 발표
2020.9.18.	의회예산처(CBO), 코로나19 대응법이 산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
2020.9.18.	연방준비제도(Fed), 미국 가계의 경제적 복지 보고서 보충 조사 발표
2020.9.21.	의회예산처(CBO), 2020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20.9.23.	감사원(GAO), 국가 재정 건전성 보고서 발표
2020.9.30.	의회, FY2021 1차 임시 예산안(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H.R. 8337; P.L. 116-159) 통과 의결
2020.10.22.	경제자문위원회(CEA), 규제 개혁 진행 상황 발표
2020.11.9.	의회예산처(CBO), FY2020 결산 확정치 발표
2020.11.10.	의회예산처(CBO), 연방학자금 융자 현황 보고서 발표
2020.11.19.	재무부, 일부 긴급대출제도 종료 계획 발표
2020.12.9.	의회예산처(CBO), 2021-2030 적자감축 옵션 보고서 발표
2020.12.10.	감사원(GAO), 긴급대출제도 평가보고서 발표

2020.12.11.	미 의회, FY2021 2차 임시 예산안(H.R. 8900; P.L. 116-215) 통과 의결	
2020.12.18.	미 의회, FY2021 3차 임시 예산안(H.J.Res. 107; P.L. 116-225) 통과 의결	
2020.12.20.	미 의회, FY2021 4차 임시 예산안(H.J.Res. 107; P.L. 16-226) 통과 의결	
2020.12.21.	미 의회, FY2021 5차 임시 예산안(H.R. 1520) 통과 의결	
2020.12.27.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이 포함된 FY2021 정규세출예산안 서명 완료	
2021.1.	관리예산처(OMB), 2020 페이고(PAYGO) 최종 보고서 발표	2021년 상반기 재정동향
2021.1.8.	美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0년 12월 고용통계 발표	
2021.1.13. / 3.3. / 4.14. / 6.2.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0.1.13.	의회조사처(CRS), 「미국 소득 분배 추세 및 이슈」 보고서 발표	
2021.1.14.	의회예산처(CBO), 2021 회계연도 정규세출예산 및 코로나 대응 지원 예산(P.L. 116-260)에 대한 비용 추계 보고서 발표	
2021.1.15.	美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 2020 대통령 경제 보고서 발표	
2021.1.28. / 4.29.	美 상무부 경제개발청(BEA), GDP(속보) 발표	
2021.2.5.	美 의회, 2021 회계연도 예산결의안(S.Con.Res.5) 통과 의결	
2021.2.8.	의회예산처(CBO), 「임금 인상법안(Raise the Wage Act of 2021)」 예산 영향 보고서 발표	
2021.2.11.	의회예산처(CBO), 2021~2031 재정 및 경제 기준선 전망 발표	

2021.2.17. / 4.7. / 5.19.	美연방준비제도(Fed) FOMC 회의록 공개
2021.2.19.	美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보고서 발표
2021.3.10.	미 의회,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책(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H.R. 1319) 최종 통과 의결
2021.3.25.	美 의회,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연장법안(PPP Extension Act(H.R. 1799) 통과 의결
2021.2.7.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보고서 발표
2021.3.4.	의회예산처(CBO), 2021 장기재정전망(The 2021 Long-Term Budget Outlook) 보고서 발표
2021.3.25.	재무부 재정관리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 FY2020('19.10월~'20.9월) 발생주의 결산보고서
2021.3.31.	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 발표
2021.4.9.	관리예산처(OMB), 2022 회계연도(2020.10~2021.9) 대통령 예산안(재량지출 부문) 발표
2021.4.16.	美 재무부, 미국 주요 무역 파트너의 거시 경제 및 외환 정책에 대한 보고서 발표
2021.4.28.	바이든 대통령, 미국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 발표
2021.1.27. / 3.17. / 4.28. / 6.16.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동결 (0~0.25%)
2021.5.6.	美 연방준비제도(Fed),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2021.5.12.	감사원(GAO), 2021년 연례 보고서(분절·유사·중복 프로그램 감축과 재정 절감방안) 발표
2021.5.12.	美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1년 4월 물가 통계 발표

2021.5.20.	의회 하원, 1월 6일 의사당 난입 및 의회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긴급 안보 추경 세출예산안 통과 의결	
2021.5.28.	OMB(관리예산처), FY2022 예산안 발표	
2021.6.17.	연방대법원(SCOTUS),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합헌 판결	
2021.6.7.~2021.6.17.	美 노동부, 주간 실업급여 청구 통계 발표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22년 실질경제성장률은 올해 추정치인 5.2%대비 0.9%p 하락한 4.3%,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장기적으로 2.0% 수준 전망
- (재정 전망) FY2022 재정적자 규모는 1조 8,370억달러로, 전년(3조 669억달러)대비 49.9% 감소 전망
- (국가채무) FY2022 연방정부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 추정치 (24조 1,670억달러, GDP 대비 109.7%) 대비 2.8%p 증가한 26조 2,650억달러(GDP 대비 111.8%) 전망

□ 예산기조

- 팬데믹 대응 및 경제 회복
-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
-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정부

□ 예산안 내용

- (수입) FY202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6.6%(5,934억달러) 증가한 4조 1,742억달러(GDP 대비 17.8%) 전망
- (지출) FY2022 재정지출은 전년(7조 2,490억달러) 대비 약 17.1% 감소한 6조 110억달러(GDP 대비 25.6%) 계획

□ 주요 재정정책

- 인프라 계획(American Jobs Plan)을 통한 교통 인프라 재건, 식수·전력·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강화, 주택·학교·의료시설·연방시설 개선, 취약계층 부양 지원, R&D 지원, 제조업·중소기업 지원 등

-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을 통한 무상교육 확대, 교육·보육 서비스 강화, 노동자 및 가족 지원 등

□ 주요 사업 재원 조달 방안

- Made in American Tax Plan을 통한 클린에너지 지원, 법인세 개편을 통해 1조 6670억 세수 확충 계획
- 고소득자 소득세 강화 및 조세 납부 관리 강화를 통한 1조 4724억달러 세수 확충 계획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¹⁾

□ (경제성장률) 올해('21년) 실질성장률은 5.2%, 내년('22년) 4.3%로 전망하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장기적으로 2% 수준 전망

* CBO가 2021.2.11.에 발표한 「'21~'31년 예산·경제 전망²⁾」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1년 4.6%, '22년은 2.9%로 하락할 전망 → 이후 '24~'25년(평균)은 2.3% 수준

- 정부의 2021년 경제전망은 CBO와 Blue Chip Survey³⁾ 등 다른 주요 전망에 비해 0.3~0.6%p 정도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전망
- 2021년 명목GDP 규모는 22조 4,110억달러, 2026년에 27조 7,940억달러 전망

<표 1> 미국 경제성장률 기관별 비교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구분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2031
실질 GDP ¹⁾	1.5	2.2	2.9	2.2	정부	-3.5	5.2	4.3	2.2	1.9	...	2.0
					CBO	-3.4	4.6	2.9	2.2	2.3	...	1.6
					Blue Chip	-	4.9	3.8	2.3	2.4	...	1.9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Table 2-3,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1.5.28.

□ (노동시장) 내년('22년) 실업률은 올해('21년) 전망 대비 1.4%p 하락한 4.1%로 전망되며, 이후 '31년까지 장기적으로 3.8% 유지 전망

- 2020년 4월에 14.8%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4월에 6.1% 수준까지 감소했음

□ (소비) 소비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큰 폭의 회복세를 보임

1) 경제전망에서의 연도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아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의미

2)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2.11.

<<https://www.cbo.gov/publication/56970>>

3) 미국 주요 경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화한 수치

-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분기와 2분기 실질 개인소비지출(PCE)은 각각 6.9%, 33.2% 감소했음
- 2020년 3분기 41.0% 증가한 후, 2020년 4분기 2.3%, 2021년 1분기 10.7%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실질 개인소비지출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보다 0.2% 낮은 수준임

□ (투자) 실질 비주거 고정투자는 2020년 전년 대비 4.0% 감소했으나, 장비 및 지적 재산 투자는 최근 크게 회복세를 보임

<표 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2031
명목 규모	21,433	20,933	22,411	23,799	24,808	25,778	26,767	...	33,723
실질 GDP 성장률 (2022 예산안 전망치)	2.2	-3.5	5.2	4.3	2.2	1.9	1.8	...	2.8
실질 GDP 성장률 (2021 예산안 전망치)		2.8	3.1	3.0	3.0	3.0	3.0	...	-
실업률 ¹⁾	3.7	8.1	5.5	4.1	3.8	3.8	3.8	...	3.8
CPI-U ²⁾	1.8	1.2	2.1	2.1	2.2	2.2	2.3	...	2.3
국채 91일 ³⁾	2.1	0.4	0.1	0.2	0.4	0.8	1.2	...	2.2
국채 10년물 ¹⁾	2.1	0.9	1.2	1.4	1.7	2.1	2.4	...	2.8

주: 지표의 수치는 2021년 2월 중순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주: 1) 연평균

2) 계절 조정(도시 소비자 대상)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able S-9,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1.5.28.

나. 재정 전망4)

- (재정수입) FY202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6.6%(5,930억달러) 증가한 4조 1,740억달러(GDP 대비 17.8%) 전망
- (재정지출) FY2022 재정지출은 전년(7조 2,490억달러) 대비 약 17.1% 감소한 6조 110억달러(GDP 대비 25.6%) 계획
 - (재량지출5) FY2022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1조 6,880억달러 계획6)
 - 국방분야 예산은 예산권한7)을 기준으로 할 경우, FY2022 규모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7,529억달러의 수치를 보임8)
 - 비국방분야 예산은 예산권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대비 12.3% 감소한 7,681억달러를 보임
 - (의무지출) FY2022 의무지출(순이자지출 3,050억달러 포함)은 전년 대비 22.2% 감소한 4조 3,230억달러 전망
 - 순이자지출은 올해(FY2021) 3,030억달러, 내년(FY2022)에 3,050억달러로 0.6% 증가 전망
- (재정수지) FY2022 재정적자 규모는 1조 8,370억달러로, 전년(3조 669억달러)대비 49.9% 감소 전망
 - * FY2022 GDP대비 재정수지 규모는 올해(FY2021) 추정치 16.7% 대비 8.9%p 감소한 7.8% 전망
 - FY2021 재정적자는 전년도에 발표한 FY2021 예산안 전망 대비 큰 규모로 상향조정(4.1%)된 16.7%로 이번 예산안(FY2022)에서는 향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4) 2022회계연도 기간은 2021.10~2022.9이며, FY2022 전망 시 비교하는 전년의 규모는 추정치이며, 예산 기본 문서의 <Table S-4 - Proposed Budget by Category>의 수치임

5) 총 재량지출(outlays) 기준이기에, <표 9>의 '기관별 (재량)지출 순 예산권한(Budget Authority)' 수치와는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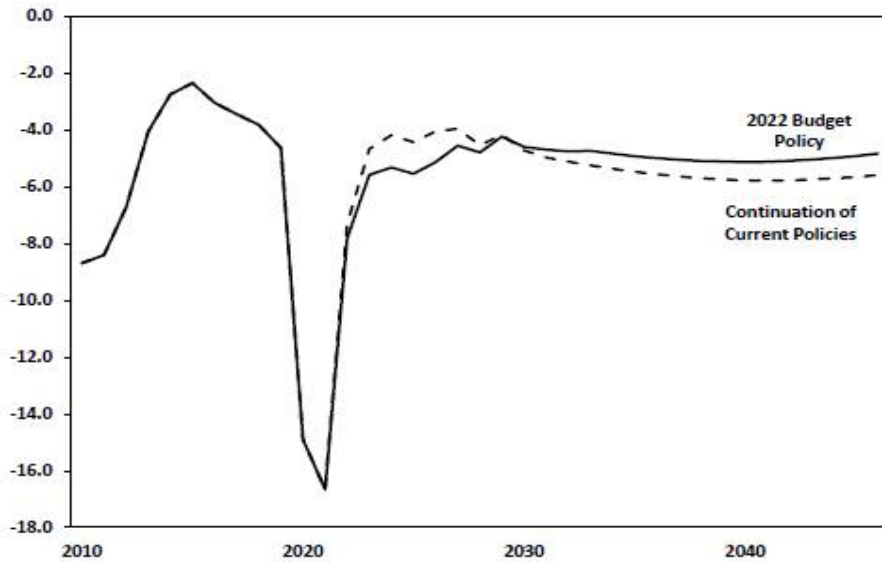
6) 재량지출은 <Historical Tables (Table 5.6 - Budget Authority for Discretionary Programs: 1976-2025)>의 순예산권한을 기준으로 할 경우, FY2021 규모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1조 5,201억달러의 수치를 보임

7) Historical Tables (Table 5.6 - Budget Authority for Discretionary Programs: 1976-2026)의 수치임

8) Historical Tables (Table 8.7 - Outlays for Discretionary Programs: 1962-2026), 대통령 예산안 문서 (Summary Table S-4) 수치(Outlays)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방분야 예산(지출 기준)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7,559억달러 계획, 비국방분야 예산(지출 기준)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9,321억달러 계획

- 재정적자는 FY2022부터 점차 감소하여 향후 10년(~FY2031)안에 GDP 대비 4.7%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총 누적 재정적자는 14조 5,310억달러로 전년도에 발표된 대통령 예산안 수치(5조 6,130억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 FY2022 예산정책의 효과로 인해 FY2031 재정적자의 GDP 대비 규모가 4.7%까지 감소하고, FY2031부터 FY2046까지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의 규모의 증가는 0.6%p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아래 그림 참고>

[그림 1] 연도별 GDP대비 재정수지 전망



주: 1) 흑자는 +, 적자는 -
2) 단위: 년도, %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Chart 3-1,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1.5.28.

□ (국가채무) FY2022 연방정부 채무⁹⁾¹⁰⁾(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 추정치 (24조 1,670억달러, GDP 대비 109.7%) 대비 2.8%p 증가한 26조 2,650억달러(GDP 대비 111.8%) 전망

* FY2022 연방총채무¹¹⁾(32조 4450억달러; GDP대비 138.1%)중 정부 내부거래를 의미하는 정부부문 소유채무는 6조 1,800억달러 전망

9) 정부 내부거래 제외

10) 정부 내부 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를 제외한 연방정부 채무는 미국 채무의 주요지표로 쓰임

11) 연방총채무(Gross Federal Debt) = 비정부부문소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채무) + 정부부문소유채무(Debt held by the Government accounts, 정부내부거래만 포함한 채무)

- FY2021 GDP 대비 연방 채무¹²⁾는 전년(100.1%) 대비 9.7%p 증가한 109.7% 전망
 - FY2021부터 점차 증가하여 향후 10년(~FY2031) 안에 GDP 대비 117.0%까지 증가할 전망

<표 3> 미국 재정전망

재정 전망	실적			추정	전 망							
	2008 ¹⁾	2009 ²⁾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2030	2031
예산총량 (십억 달러)												
수입	2,524	2,105	3,421	3,581	4,174	4,641	4,828	5,038	...	6,370	6,643	54,665
지출	2,983	3,518	6,550	7,249	6,011	6,013	6,187	6,508	...	7,847	8,211	69,196
재정적자	459	1,414	3,129	3,669	1,837	1,372	1,359	1,470	...	1,477	1,568	14,531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5,803	7,544	21,017	24,167	26,265	27,683	29,062	30,539	...	37,481	39,059	-
경제규모 (GDP)	14,441	14,119	21,000	22,030	23,500	24,563	25,537	26,516	...	32,094	33,391	-
예산총량 (GDP대비 %)												
수입	17.7	14.8	16.3	16.3	17.8	18.9	18.9	19.0	...	19.8	19.9	19.3
지출	21.0	24.7	31.2	32.9	25.6	24.5	24.2	24.5	...	24.4	24.6	24.5
재정적자	3.2	9.9	14.9	16.7	7.8	5.6	5.3	5.5	...	4.6	4.7	5.2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40.8	53.0	100.1	109.7	111.8	112.7	113.8	115.2	...	116.8	117.0	-

주: 1) 금융위기 발생 당해 연도 수치

2) 금융위기 발생 직후 연도 수치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able S-1) Fiscal Year 2021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0.2.10.

12) 정부 내부 거래 제외

<참고> CBO 2021~2031 예산·경제 기준선 전망

※ 2021년 2월 재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용 발췌

- ◇ **(경제 전망)** '20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추정되며, '21년은 4.6% 전망 (2026~2031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7% 수준)
- (성장률) 향후 5년간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지만, 2025년부터는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1.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빠른 경제 회복에 따라 민간 노동 시장은 2022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고, 취업자 수도 2024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인플레이션) 연방준비제도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장기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장기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목표 수준인 2%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표 4>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calendar year 기준)

경제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2025	2026~2031
	실적	전망			평균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3.5	4.6	2.9	2.2	2.3	1.7
개인소비지출물가	1.2	1.6	1.8	1.9	2.0	2.1
실업률	8.1	5.7	5.0	4.7	4.2	4.1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2.11

- ◇ **(재정 전망)** FY2021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9천억달러 감소한 2조 3천억달러로 GDP대비 10.3% 전망
- (수입) FY2021 연방수입은 전년대비 2.5%(860억달러) 증가한 3조 5천억달러 전망
 - (지출) FY2021 연방지출은 전년대비 12%(7,880억달러) 감소한 5조 7천억달러 전망
 - (국가채무) 연방정부 채무¹³⁾는 2020년 GDP대비 비중 100%에 달했고, 2021년 말 102% 수준에 이른 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다시 증가해 2031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107%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됨

<표 5> 미국 재정 기준선 전망 (fiscal year 기준)

재정 전망	실적	전 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예산총량 (GDP대비 %)												
수입	16.3	16.0	17.3	17.5	17.3	17.2	17.6	17.9	17.8	17.7	17.6	17.5
지출	31.2	26.3	21.9	21.5	20.9	21.1	21.4	21.6	22.4	22.1	22.8	23.2
재정적자	14.9	10.3	4.6	4.0	3.6	4.0	3.7	3.7	4.6	4.4	5.2	5.7
국가 채무 ¹⁾	100.1	102.3	102.0	102.0	101.4	101.2	100.9	101.0	102.2	103.2	105.0	107.2

주: 1) 국가채무는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연방채무 규모를 의미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1 to 2031, 2021.2.11

13)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 제외

2. 예산기조

-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주요 투자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조세 개편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적자 개선도 목표로 함
 - 이번 예산안은 ① 인프라계획 ② 미국 가족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인프라 재건과 함께 국가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가족 관련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

◇ 팬데믹 대응 및 경제 회복

- 미국 가족계획을 통한 취약계층 구호
- 경제 회복 및 장기적 계획 수립

◇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

- 인프라계획 및 미국 가족계획을 통한 경제 회복
 - 일자리 창출, 중국에 대한 우위 선점, 인프라 재건 등을 목표로 함
- 기회 확대
 - 교육 및 보육 지원 강화, 주택 구매 보조, 사법 구조 개편 등을 목표로 함
- 공중 보건 인프라 투자
- 기후 위기 대응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정부

-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평등(equity) 강화
- 정부 및 정책 신뢰 확보를 통한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
- 사이버 보안 강화
- 내수 상품 정부 구매 확대

3. 예산안 내용¹⁴⁾

가. 세입

- FY2022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6.6%(5,934억달러) 증가한 4조 1,742억달러(GDP 대비 17.8%) 전망
 - 올해(FY2021) 재정수입은 전년(FY2020) 실적 대비 약 1.2%(422억달러) 감소한 3조 5,810억달러(GDP 대비 16.3%) 추정
 - GDP 대비 재정수입은 FY2024에 19% 수준에 도달한 후, FY2031까지 19.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향후 10년간 GDP대비 평균 수입비율은 19.3% 전망)
 - 수입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의 GDP대비 비중은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현재(FY2021) 7.7%에서 향후 10.6%(FY2030)로 상승 전망 (향후 10년간 GDP대비 평균 개인소득세수입비율은 9.7% 전망)

14) 2022회계연도 기간은 2021.10~2022.9이며, FY2022 전망에서 비교하는 전년도 규모는 추정치이며, 예산안 부속서류인 historical table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6), (Table 2.1 - Receipts by Source: 1934-2026)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

<표 6> 분야별 주요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실적	추정	전망								GDP 대비 평균 비중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030	2031	'22~'31
개인소득세	1,609	1,705	2,039	2,242	2,288	2,436	2,676	...	3,354	3,526	9.7
법인세	212	268	371	577	649	673	664	...	681	693	2.2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¹⁾	1310	1296	1462	1528	1590	1647	1711	...	2010	2087	-
소비세	87	74	84	89	93	94	95	...	101	102	0.3
유산세, 증여세	18	18	21	18	19	20	21	...	37	39	0.1
관세	69	85	57	45	45	47	48	...	55	57	0.2
연방 준비제도 예치 이익금 ²⁾	82	97	102	103	99	77	68	...	75	79	0.3
기타 수입	36	37	39	40	44	46	49	...	59	60	0.2
총 재정수입	3,421	3,581	4,174	4,641	4,828	5,038	5,332	...	6,370	6,643	-
GDP대비 %	16.3	16.3	17.8	18.9	18.9	19.0	19.4	...	19.8	19.9	19.3

* : 5억달러 이하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4), 2021.5.28.

나. 세출¹⁵⁾

- FY2022 재정지출은 전년(7조 2,490억달러) 대비 약 17.1% 감소한 6조 110억달러(GDP 대비 25.6%) 계획
 - FY2020 재정지출(실적)은 6조 5,500억달러로 GDP 대비 31.2% 기록
 - 예산 기능별 지출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항목은 사회보장지출, 소득보장(income security), 보건, 메디케어, 국방, 순이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모두 포함한 FY2022의 주요 기능별 지출(outlays by functio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¹⁶⁾
 - (사회보장¹⁷⁾)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조 2,032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0% 전망
 - FY2019 사회보장지출 규모는 1조달러를 웃돌았으며, 올해(F2020) 5.4%의 증가율을 보인 후, 향후 몇 년간 5%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 지속 전망
 - (소득보장 지원, income security) 전년 대비 48.9% 감소한 9,838억달러로 총 지출 대비 비중은 16.4% 전망
 - 소득보장 지원 분야의 하위기능 중 주거지원(Housing Assistance),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 식품·영양지원(Food and nutrition assistance) 및 기타 소득보장 지출 감소
 - 퇴직/장애보험(General retirement and disability insurance; 사회보장분야 지출 제외) 및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지원(federal employee retirement and disability) 비용 지출은 증가
 - (보건, Health) 전년 대비 3.2% 증가한 8,625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비중은 14.4% 전망

15)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전년도 규모는 추정치 규모를 의미함

16) Historical Tables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6),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1.5.28

17)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로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해당

- 의료 서비스(health care services), 보건관련 연구·교육(health research and training) 비용 지출은 증가했으나, 소비자 및 직장 내 보건·안전(consumer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지출은 감소함
- (메디케어¹⁸⁾) 전년 대비 8.0% 증가한 7,741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비중은 12.9% 전망
 - 2018년에 한 차례 감소를 보인 메디케어 지출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6년 1조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국방)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7,705억달러로 총 지출 대비 비중은 12.8% 전망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 국방은 2026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8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순이자 지출) 전년 대비 0.6% 증가한 약 3,049억달러로 총 지출 대비 비중은 5.1% 전망
 - 2021년 크게 하락한 순이자 지출은 2022년 회복세를 보였고 2024년에 2020년 수준 이상(3,678억달러)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18)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저소득자 및 신체장애인 대상 의료 지원 제도

<표 7> FY2021 예산안 기능별 순 지출(Net Outlays) 규모

(단위: 백만달러, %)

Outlays By Function	실적		추정	전망	증감	
	2019	2020	2021 (a)	2022 (b)	금액 (b-a)	증가 율
국방	686,003	724,645	748,408	770,567	22,159	3.0
국제관계	52,739	67,666	51,668	59,001	7,333	14.2
과학/우주/기술	32,410	34,004	38,239	41,678	3,439	9.0
에너지	5,041	7,083	6,144	19,330	13,186	214.6
천연자원, 환경	37,844	42,450	47,102	69,167	22,065	46.9
농업	38,257	47,298	65,569	32,530	-33,039	-50.4
상업/주택융자(housing credit)	-25,715	568,866	384,665	26,552	-358,113	-93.1
교통	95,756	145,624	178,057	148,622	-29,435	-16.5
지역사회/지방발전	26,784	81,878	92,930	72,025	-20,905	-22.5
교육/훈련/고용/사회서비스	136,700	237,754	271,141	247,024	-24,117	-8.9
보건(의료)	584,816	747,582	836,241	862,545	26,304	3.2
메디케어	650,996	776,225	716,908	774,116	57,208	8.0
소득보장	514,787	1,263,639	1,926,462	983,891	-942,571	-48.9
사회보장	1,044,409	1,095,816	1,141,177	1,203,206	62,029	5.4
재향군인	199,843	218,655	236,279	290,383	54,104	23.0
법무행정	65,832	71,997	83,427	74,649	-8,778	-10.5
일반정부	23,488	180,106	325,646	111,066	-214,580	-66.0
순이자	375,158	345,470	303,002	304,939	1,937	0.6
기타(상계수입 포함)	-98,192	-106,362	-203,609	-143,814	59,795	-29.4
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	4,446,956 (21.0)	6,550,396 (31.2)	7,249,456 (32.9)	6,011,148 (25.6)	-1,238,308	-17.1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istorical Tables (Table 1.3, Table 3.2),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1.5.28.

□ 주요 항목별 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미국 재정의 항목(category)별 지출은 재량지출과 법정(의무)지출로 구분, 재량지출은 다시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 지출로 나누어짐

-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폭 감소하지만 203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국방분야 예산은 향후 10년동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비국방분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31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의무지출) 2022년, 2023년 감소 후 2031년까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GDP대비 비중은 2023년부터 향후 10년(2022~2031) 평균 수준인 16.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지출별 비중)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총지출대비 비중은 올해(FY2021) 28:72 수준이며, 향후 10년 뒤인 2031년에는 23:77 수준 전망(순이자지출 포함)

<표 8> 항목(Category)별 지출 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2029	2030	2031	2022~ 2031
재량지출 프로그램												
국방	714	735	756	756	775	791	804	...	835	843	851	8,052
비국방	913	960	932	930	909	914	917	...	964	984	1,002	9,426
소계: (GDP 대비 %)	1,627 (7.7)	1,696 (7.7)	1,688 (7.2)	1,685 (6.9)	1,683 (6.6)	1,704 (6.4)	1,721 (6.3)	...	1,799 (5.8)	1,827 (5.7)	1,854 (5.6)	17,478 (6.2)
법정(의무)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1,090	1,135	1,196	1,261	1,333	1,410	1,492	...	1,767	1,866	1,966	15,542
메디케어	769	709	766	841	840	947	1,014	...	1,178	1,325	1,412	10,633
메디케이드 ¹⁾	458	521	571	582	616	645	674	...	768	801	837	6,926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2,260	2,886	1,486	1,324	1,347	1,357	1,321	...	1,168	1,200	1,228	12,891
소계 (GDP 대비 %)	4,578 (21.8)	5,251 (23.8)	4,018 (17.1)	4,008 (16.3)	4,136 (16.2)	4,358 (16.4)	4,501 (16.3)	...	4,882 (15.8)	5,191 (16.2)	5,444 (16.3)	45,992 (16.3)
순이자 (GDP 대비 %)	345 (1.6)	303 (1.4)	305 (1.3)	320 (1.3)	368 (1.4)	445 (1.7)	524 (1.9)	...	744 (2.4)	829 (2.6)	914 (2.7)	5,726 (2.0)
총 재정지출	6,550	7,249	6,011	6,013	6,187	6,508	6,746	...	7,425	7,847	8,211	69,196
GDP 대비 %	31.2	32.9	25.6	24.5	24.2	24.5	24.5	...	24.1	24.4	24.6	24.5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roposed Budget by Category (Table S-4, S-5),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1.5.28.

□ 주요 부처(기관)별 2022 회계연도 재량지출 사업 예산안 규모는 다음과 같음¹⁹⁾

○ 국방부

- 국방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도(FY2021) 확정예산(7,037억달러) 대비 1.6% (113억달러) 증가한 7,150억달러 편성²⁰⁾²¹⁾
 -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대응으로 태평양 억지 구상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인도 태평양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동맹국과 협력 강화
 - 차세대 방어 능력 개발과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위 연구 개발 지원
 - 전략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재원을 확충하고 원격 운용 시스템과 차세대 공격 잠수함 프로그램 투자
 - 핵 억지력 현대화 및 장거리 화력 대응 역량 투자를 통해 필수적 국가 안보 역량 강화
 - 기후 변화 대응 및 군인 가족 복지 투자

○ 보건·복지부²²⁾

- 보건·복지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도(FY2021) 확정예산(1,086억) 대비 23.1%(251억) 증가한 1,337억달러 편성
 - 공중 보건 역량 강화 및 팬데믹 관련 의료 물자 보충을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대해 작년보다 16억 달러 증가한 87억달러, 질병예방대응본부(ASPR)의 전략 국가 비축물(Strategic National Stockpile)에 9억 5천만 달러를 배정
 -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해 CDC에 1억달러 배정해 총기로 인한 사망을 공중 보건

19) 특정 기금 또는 자금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에, <표 9>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20) 해외비상작전(OCO) 예산 포함. 긴급비상지출(emergency requirements)은 제외

21) 재량지출 국방부 예산 계산: 대통령 예산안 문서 Table S-8 수치를 토대로 작성

<FY2021 국방부 예산> Defense \$636.4 bn + OCO \$69.0 bn

<FY2020 국방부 예산> Defense \$633.3 bn + OCO \$71.3 bn → FY2020 OCO 전체 예산은

\$79.5 bn 이나, 국방부가 아닌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예산이 혼재되어 있기에 본 수치에서는 제외

22)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문제로 접근하며, 법무부와 협력해 지역사회 기반 폭력 개입 이니셔티브 (Community based violence intervention initiative)를 구현하고자 함

- 조기 교육 프로그램의 지역별 격차를 메우고 모든 가구에 질 좋고 경제적인 보육을 가능케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198억달러(전년대비 28억달러 증가)를 배정함
- 난민 정착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이민자 자녀와 친척 및 후원자와의 통합 보장 등 지원서비스를 실현하고, 2022년 최대 12만 5천명의 난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난민 재정착 사무국에 43억 달러 배정

○ 교육부

- 교육부의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 확정예산(730억달러) 대비 40.8%(298억달러) 감소한 1,028억달러 편성
- 미국 구조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이 부족한 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365억달러를 배정
- 방과후 교육, 성인 교육, 건강 및 영양 서비스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 학교(full service community school)에 대한 기금을 3천만 달러에서 4억 4300만달러로 증액함
- 흑인대학(HBCUs²³⁾) 소수민족 대학(Tribally Controlled college and university), 지역대학 등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2021년보다 6억달러 이상 증액함

<표 9> 기관별 (재량)지출 순예산권한 내역

(단위: 십억달러, %)

	2021 입법예산	2022 예산안	증감규모	증가율
			(2021 입법예산 대비 2022 예산안)	
내각 부처 (Cabinet Departments)				
농무부 (Agriculture)	23.9	27.9	4.0	16.7
상무부 (Commerce)	8.9	11.5	2.6	29.4
국방부 ¹⁾ (Defense)	703.7	715.0	11.3	1.6
교육부 (Education)	73.0	102.8	29.8	40.8

23) HBCU: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1964년 이전 미국 내 흑인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대학을 통칭)

에너지부 (Energy)	41.8	46.2	4.3	10.4
보건복지부 (Health & Human Services)	108.4	133.7	25.3	23.4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프로그램(DHS Program level)	54.9	54.9	+ ¹⁾	0.1
교통안전청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Fees)	-0.5	-2.7	-2.3	N/A
주택·도시개발부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44.5	58.2	13.6	30.5
내무부 (Interior)	15.0	17.4	2.5	16.7
법무부 (Justice, DOJ)	33.5	35.3	1.8	5.3
노동부 (Labor)	12.5	14.2	1.7	14.0
국무부 (State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57.3	63.6	6.3	11.0
교통부 (Transportation)				
교통부 재량 프로그램	22.4	25.7	3.3	14.8
교통부 일반 계정에서 이전된 의무 프 로그램(General fund Transfer to Mandatory Programs)	2.9	...	-2.9	N/A
재무부 (Treasury)	13.5	15.0	1.5	11.3
보훈부 (Veterans Affairs)	104.6	113.1	8.5	8.2
주요 정부기관 (Major Agencies)				
공병단(Corps of Engineers)	7.8	6.8	-1.0	-12.9
환경보호청	9.2	11.2	2.0	21.6
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0	1.5	2.5	N/A
항공우주국(NASA)	23.3	24.8	1.5	6.6
국립과학재단	8.5	10.2	1.7	19.8
중소기업청	0.8	0.9	0.1	9.5
사회보장국	9.0	9.8	0.8	9.3
기타 기관들	23.4	25.5	2.1	8.8
의무지출 변화 (Changes in Mandatory Programs)	-26.0	-26.0
합계	1,592.3	1,521.0	-71.3	-4.5
(Defense Total)	(740.7)	(752.9)	(12.2)	(1.6)
(Non-Defense total)	(660.7)	(769.6)	(108.9)	(16.5)

주: 1) 5천만달러 미만의 차이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able S-7, S-8)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2021.5.28.

4. 주요 재정정책²⁴⁾

가. 인프라 계획(American Jobs Plan)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국가 기반 시설의 질은 13위임을 언급하며 인프라 재건, 미래의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중국과의 경쟁 우위 등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약 2.6조달러를 투자함
 - 교통 인프라 재건
 - 도로 복구 및 항구, 공항 개선 등 교통 인프라 개선(5,464억달러)외에 기존 인프라 안전성 개선(492억달러) 등 교통 인프라 재건에 5,957억달러 배정
 - 식수, 전력,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강화
 - 납 파이프 제거 및 식수 인프라 개선(1,110억달러),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전력 인프라 개선(978억달러),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보급(1,000억달러) 등에 총 3,088억달러 배정
 - 주택·학교·의료시설·연방시설 개선
 - 퇴역군인을 위한 시설 개선(273억달러), 학교 및 보육 인프라 현대화(870억달러), 공동주택 개선 및 현대화(2,117억달러) 등 총 3,260억달러 배정
 - 취약계층 부양 지원
 -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하고 유색인종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돌봄 노동자를 위한 지원에 4,000억달러 배정
 - R&D 지원
 - 흑인대학(HBCU)을 포함한 연구 인프라 펀드(400억달러), 기후변화 프로젝트 기구(150억달러), 이공계(STEM)교육 센터 설립(100억달러) 등 총 1,800억달러 배정
 - 제조업·중소기업 지원

24) 주요 금액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able S-6)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1.5.28.을 참조함

- 국내 상품 제조역량 강화(Make it in all of America, 324억달러), 청정 에너지 기반 제조업 지원(484억달러) 등 총 2,990억달러 배정

나.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 향후 10년간 1.7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중산층의 교육 및 보육 지원, 무상교육 확대 등을 목표로 함
 - 무상교육 확대
 - 미취학 아동 및 지역 대학(community college) 무상 교육 등을 통해 최소 4년의 추가적 무상 교육 확대에 4,370억달러 배정
 - 교육·보육 서비스 강화
 - 교사에 대한 교육에 80억달러를 배정했고, 새로운 아동 보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 영양 관리 및 정신 건강 관련 사업 등에 4,983억달러 배정
 - 노동자 및 가족 지원
 -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의 정책을 확대해 아동 보육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에 7,993억 달러 배정

5. 주요 사업 재원 조달 방안²⁵⁾

가. Made in American Tax Plan

- 클린에너지 지원, 법인세 개편을 통해 향후 10년간 1조 6,670억달러 세수 확충
 - 클린에너지 지원
 - 석유 시추 비용과 같은 화석연료 세제혜택 폐지(350억달러), 슈퍼펀드²⁶⁾에 관

25) 주요 금액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Table S-6)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1.5.28.을 참조함

26) 유해 물질 방출에 대한 책임 및 제거 행위

한 조세(superfund excise tax) 복원(248억달러)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전기차, 재생 및 대체 에너지에 투자를 계획함

○ 법인세 개편

- 법인세율²⁷⁾ 28%로 인상(8,578억달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5,335억달러), 조세피난처 제한(3,900억달러), 대기업 장부이익 최소 15% 과세(1,483억달러) 등 2조 350억 달러 세수 확충

나. 고소득자 소득세 강화 및 조세 납부 관리 강화

□ 고소득자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개편, 조세 납부 및 관리 강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1조 4,724억달러 세수 확충

○ 고소득자 소득세 강화 및 조세 허점²⁸⁾(loophole) 제거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연소득 40만달러 이상, 37%→39.6%)을 통해 1,319억달러, 자본이득세 개편(연소득 1백만달러 이상, 20%→39.6%)을 통해 3,225억 달러 등 총 7,548억 달러 세수 확충

○ 조세 납부 및 관리 강화

- 감사원 및 국세청에 대한 지원 강화(2,451억 달러), 포괄적 재무 정보 보고 도입(4,627억달러) 등 총 7,176억달러 세수 확충

27) 지난 2018년 미국은 법인세율을 15~35%의 누진세 구조에서 21% 단일 세율로 개정함

28) 예산안 본문에서 조세 허점(loophole)로 자본 이득 및 부유층에 대한 낮은 조세를 지적함